칼빈대학 총장, 마이클 르 로이(Michael Le Roy)를 만나다

공공의 장으로 나아가

지난 6월, 경주에서 열린 제7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에 칼빈대학(Calvin College, in Grand Rapids, Michigan) 총장인 마이클 르 로이(Michael Le Roy)가 강사로 초빙되어 방한하였다. 아래 대담은 한동대학교 학문과 신앙 연구소장인 최용준 교수가 맡아 주었다.

최용준(이하 최) :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한국에 오신 이유도 덧붙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ichael Le Roy(이하 Le Roy) :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의 세 기독교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La Mesa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워싱턴 주의 Bainbridge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모든 경험은 기독고등교육(Christian Higher Education)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주에 소재한 기독교 학교인 Whitworth대학에서 학부 시절을 보낸 후, 저는 기독교대학이 아닌 일반 사립학교인 Vanderbilt대학원으로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학문과 신앙, 특별히 정치학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강조했던 Jean B. Elshtain 교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이런 선택은 제가 학위를 취득하고, 일리노이 주의 Wheaton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 Whitworth대학으로 돌아와 3년간 정치학을 가르친 후 학장과 학사 부총장으로 일했고, 3년 전부터는 미시간 주의 칼빈대학에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 : **칼빈 대학의 총장으로서 총장님의 비전에 대해 밀씀해 주시겠습니까?**

Le Roy : 먼저 칼빈대학은 1867년 개교 이래 기독고등교육에 대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그 유산(전통)의 한 구성원으로 제가 속해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들이 깊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상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저희의 사명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기독교학문과 기독교교육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수법(teaching)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언론사를 통해 기독교수진 청빙을 홍보하고,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적 교수법에 관한 소책자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더 많은 자원과 교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 : **저는 총장님께서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꽤 놀랐습니다. 칼빈대학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 교육기관으로 유명하니까요. 칼빈대학도 이제는 민족적 장벽을 극복하고 미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Kingdom agent)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Le Roy : (웃음) 네, 제가 칼빈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영광이면서 한편으론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제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라고 선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칼빈대학이 추구해 온 사명이 저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해 주었고 저 또한 이 사명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거기에 소속된 인종이나 민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CRC(Christian Reformed Church)는 북미에서 30만~40만 정도의 교인을 가진 매우 작은 교단입니다. 이 교단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고자 고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칼빈 대학 출신이었지요. 미국 학계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문구는 칼빈대학 출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칼빈 대학은 이 전통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교단이 이처럼 강력하고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전통의 한 부분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지요.

최 : **이번 강연 중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Le Roy : 북미는 갈수록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요. 이 다수의 세계관들은 과학적 자연주의일 수도 있고 문화 속의 일반적인 불가지론적 무관심이거나, 혹은 허무주의, 혹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잘 다듬어진 중요한 다른 종교전통일 수 있습니다. 혹은 대립되는 신학적인 체계로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북미적 맥락에서의 작은 종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의 핵심은 광범위한 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명시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에 근거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된 믿는 이들의 세상참여에서 확인됩니다. 저는 이런 세상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공의 장(場)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공의 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의사소통 방법과는 상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에 입각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세상과 문화에 참여하여 중심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 : **기독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Le Roy : 많은 설명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기독교문화가 이성적인 사고의 접근방식에 대해 제한된 이해, 즉 과학이 취하는 담론이나 논술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론형식 중 일부는 과학의 이름으로(혹은 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과학자에 의해 복잡해졌죠. 그것이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학은 질문(inquiry)에 접근하는 담론형식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우선적 근거로 둡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과학은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안다는 주장은 다른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과학의 토대가 (질문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다'는 전제는 이전의 지식을 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론이 잘 수행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들 이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학이 '잘 수행되었다'는 것은 과

학 스스로가 절대적이라는 말이 아닌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현대사회에 미친 과학의 기여나 공헌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며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의 기여에 대한) 좋은 예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주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기독 과학자들은 과학적 대화의 중심에 서서 바르게 분별하고, 신학적 · 철학적 주장을 하는 주류 과학자들을 비판하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위해 잘 준비된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칼빈대학에는 과학과 신앙의 통합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핵심 고백(key confession)과 고백서 등에 헌신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과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학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분야에서 존경받으며 탁월한 업적을 지닌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원적 상황이 과학과 신앙의 통합이란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의 대화를 돕고, 과학과 신학 · 철학 간의 여러 종류의 주장과 차이점을 분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 :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도 과학연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대학에서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많은 기독고등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선 기독대학을 포함한 기독고등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Le Roy :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에 기반한 많은 교육기관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고등교육기관을 살펴보면, 19~20세기까지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헌신과 참여를 구축하고 확장할 방안들을 찾았습니다. 이 방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교육적 소명이나 기독고등교육 기관에 헌신된 강력한 기독교인 이사회와 이사진을 구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독교수진을 잘 충원해야 합니다. 기독신앙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그들의 전공분야, 즉 성경학, 과학, 생물학 등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이해, 과학과 그들이 전공한 학문의 통합 등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교수진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가야만 하고 더 멀리 가야함을 확신하는 교수진을 구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수행하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진정한 기독교학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고등교육 기관이란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탱하는 핵심요소라 봅니다.

최 :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학자를 교수진으로 청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칼빈대학에 이와 관련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Le Roy :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 카이퍼 세미나(Kuiper Seminar)와 같은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최근 카이퍼 세미나Ⅱ를 개발하기 위해 'The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 교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때 많은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회에서 교리나 신학적 주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교회들이 기독교교육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수진이 단순히 등떠밀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 : **전 세계 많은 기독대학의 학자들도 카이퍼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게 하면 어떨지요?**

Le Roy :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 대학 인근 주민들에게도 강의를 공개할 수 있겠지요.

최 : **혹시 그런 기회를 직원들에게도 주고 계십니까?**

Le Roy : 지금까지는 기독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더 많은 강연을 열고 외부 강연자를 초청함으로 저희 직원들도 교수진처럼 많은 기회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직원들의 소명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인의 사명과 관련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교수진과 직원들이 함께 발전하도록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최 :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칼빈대학의 모든 학생이 기독교인입니까? 비기독교인도 있나요?**

Le Roy :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커리큘럼(혹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경험적인 측면이 저희 대학의 사명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대 학생들(Calvin Colleger)은 우리가 기독교신앙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관련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로 하여금 "아, 여기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있구나" 인지하도록 진행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신앙과 자신의 전공을 통합시키도록 격려하죠. 학생들이 전체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서도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 :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으로 칼빈대학에 왔더라도 졸업할 때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Le Roy : 물론이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입학할 당시에는 비기독교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되어 졸업한 학생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이 캠퍼스의 공동체에서 교수들이나 다른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여러 도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새 삶을 경험했고요.

최 : **칼빈대학의 학생들이 세상에 참여하도록 하고 세계를 변혁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비전선언문의 내용을 커리큘럼(교육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키셨는지요?**

Le Roy : 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실습과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high impact learning)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삶과 문화 속에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는지(be lived out)를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진 곳, 그리고 세계에 실제로 나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의 신학적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Plaster Creeks Doer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청년(young people)들과 함께 강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통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인턴십 등을 통해 다양한 것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교수들이나 다른 멘토들과 서로 나누게 하죠. 저 또한 기독교적이지 않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처한 다양한 환경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강의실 내에서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환경'. 이 환경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삶과 신앙에 통합하도록 도와줍니다.

최 : **2년 전, 저는 칼빈대학의 헨리 미 터 센터(H. H. Meeter Center)를 방문하여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 주로 이민온 네덜란드인 기업가들이 암웨이(Amway) 같은 회사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칼빈대학을 설립하고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미시간 주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겠지요.**

Le Roy :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매우 좋은 실례들입니다. 그랜드래피즈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많이 살아 봤습니다만, 그런 혁신, 개개인의 자선활동이 그토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많은 믿는 이들과 지역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소중한 방식으로 다음세대에게 돌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선순환

이 가능한 것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최 : **총장님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함께 동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고등교육의 중요성과 기독고등 교육 기관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Le Roy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칼빈대학의 몇몇 교수님들이 이곳에서 열린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IC-CHES)에 참여했었고, 많은 것을 배워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교수님들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을 방문할 뿐 아니라 한 학기 머물면서 가르치거나 배우기도 했죠.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풍성한 이해를 갖고 돌아와, 우리에게 세계적인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목격했고, 칼빈대학이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 : **서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교수 교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학자들에 대한 인상과 미래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그들에게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e Roy :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어로 진행된 강연이나 글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기독고등교육에 대해 영문으로 잘 기술한 몇몇 핵심논문(key articles)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참여에 대한 헌신과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망, 전통 등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배운 중요한 통찰력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 등과 같은 타 종교인들과 사회 내에서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학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공적인 대화(public dialogue)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국 개신교도들은 공공의 장(場)과 관계를 맺은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장에서 한국의 기독교 대학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 : **귀한 인터뷰 감사합니다.**